

그 맛이 아닌데

어제 모처럼 스타벅스 커피 가게를 갔다. 그동안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셨는데 오늘은 사서 마시자 생각에 들른 것이다. 어느 곳을 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을 찾아갔다. 나와 아내는 각자 다른 것을 오다(order)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운전을 하면서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5분이 넘는 특별한 커피의 맛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다. 너무나 싱거웠던 것이다. 아내도 자신의 생각보다 우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싱거운 맛이 든다고 했다.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 들러 저 가게에서 잘못 만들었으니 다시 만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실 수 있는 것이니 그냥 마시자고 했다. 모처럼 폼을 잡으며 마시려 했던 기분은 나지 않았다.

스타벅스라고 전부 같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 가게에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고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늘 자신이 가던 가게에 가서 사자고 했던 말이 늦게 남아 기억났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니 전부가 그렇다. 같은 재료지만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유명한 고기집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종교와 같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교회도 같은 교회이고 건물도 비슷하며 하는 모든 일들도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대로 맛이 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커피 재료였지만 무언가 모르게 적게 넣고 잘못 섞어서 맛이 다르게 되었던 것 같이 같은 교회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만 잘못 자리를 잡고 잘못 기초를 세울 때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종교단체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나도 또한 우리교회도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과 이 세대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받아 생명을 얻고자 했지만 무언가 맛이 싱겁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을 제공하는 준비 되지 못한 곳이 된다면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인가?

어떤 맛을 내야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 서로에게로부터 풍겨 나와 그것이 전달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커피 가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기 위하여 줄을 서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리라 믿는다.